

# 초등 43교 태블릿PC 지원 왜?

### 도교육청, 5·6학년 컴퓨터 활용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거쳐 10억 투입 스마트기기 1185대 지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전체 참여' 방식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태블릿PC 구입 비용 9억74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인지적 영역에서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 중 1수준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선 기초학력 도달 여부 등 정밀 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수렴해 도내 초등학교 114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3교에 11인치의 태블릿PC 1185대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컴퓨터를 이용해 5·6학년 전체 학생들이 평가를 치를 경우 그에 적합한 스마트기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학교측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 비율은

전체의 57.1%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참여율은 68.4%였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은 "이번 맞춤형 평가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와는 다르다. 각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간 비교, 성적 통제도 내지 않겠다"라며 "맞춤형 평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담임과 상담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3 제주학력 차근차근 채움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 대표 등 22명으로 '제주학력향상협의체'를 구성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학력 향상, 대학 입학 지원 등 3개 영역 22개 중·장기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전선희기자



추위로 파도만 높다면... 21일 제주도 이호해수욕장에 많은 서퍼들이 찾아 높은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선박 침수...유류 200ℓ 유출

모슬포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수되며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30분쯤 모슬포항 내 계류 중이던

6t급 어선 A호가 침수돼 유출된 유류 200ℓ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파출소 인력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해경 도착 당시 A호는 침수돼 우현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해저에 닿은 상태였다. 해경은 적재된 유류 200ℓ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되자 유출차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김도영기자

### ■ 제주시 노형동 도시계획 주민토론회

## “건축 고도 55m로” vs “조망권 등 우려”

### “드림타워·타 지역과 형평성 차원 문제 있어”

### “고도 완화로 개발되면 일조권 침해·세금 부담”

제주시 노형동 도시계획과 관련해 고도제한을 최대 55m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21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 토론회'를 열고 건축 고도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창현 도시계획학 박사의 발표에 이어 한종범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양시경 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월랑마을 회장, 재건축조합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지역 고도지구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과도한 고도지구 지정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와 창조적인 도시경관 창출의 한계가 지적됐으며 고도지구 개편 방향으로는 자연경관축과 시가지를 구분해 규제의 정도를 나누고 경관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21일 한국노총 제주본부에서 노형동 도시계획 관련 주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형동 준거주지역의 건축 고도는 55m, 거주지역은 45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노형동 발전협의회는 “노형동 준거주지역은 건축 고도가 35m이지만 직선거리로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준공됐다”며 “행정당국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또 노형 준거주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칼호텔 사옥 자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은 45m 고도 제한으로 인해 15층으로 준공되거나 공사 중단에 이곳과의 형평성

을 위해서도 노형지역에 고도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노형동 월랑마을회장은 “노후된 빌라가 많아 학생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을 발전 대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도 고민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도 완화로 개발이 되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나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고도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된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조력자도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기준도 강화

늘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3만7667건, 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2건 등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는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관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다. 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소명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한림중학교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한중인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23년

제24대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임회장 김택남(28회)



취임회장 이남호(29회)

### 총동창회 임원

- |       |          |          |          |          |          |          |          |          |
|-------|----------|----------|----------|----------|----------|----------|----------|----------|
| 고문    | 양우철(8회)  | 오남두(12회) | 김강우(14회) | 조여진(16회) | 신인준(17회) | 홍태훈(17회) | 이성구(17회) | 홍국태(18회) |
| 자문위원  | 홍순성(20회) | 강시우(21회) | 강태훈(22회) | 김성대(23회) | 김방훈(23회) | 양보윤(24회) | 김동완(24회) | 양용만(27회) |
|       | 이남근(40회) |          |          |          |          |          |          |          |
| 직전회장  | 김택남(28회) |          |          |          |          |          |          |          |
| 회장    | 이남호(29회) | 감사       | 진영범(37회) | 홍봉용(41회) | 사무국장     | 장재훈(42회) |          |          |
| 수석부회장 | 강영돈(30회) |          |          |          |          |          |          |          |
| 부회장   | 강도훈(29회) | 박승용(29회) | 양순중(29회) | 윤성중(29회) | 이봉욱(29회) | 좌중현(29회) | 진정협(29회) | 최창해(29회) |
|       | 홍만수(29회) | 홍중협(29회) | 김윤배(30회) | 김희수(30회) | 양성우(30회) | 고성호(31회) | 김대선(31회) | 김경업(32회) |
|       | 김성진(32회) | 김기환(32회) | 김윤홍(33회) | 임성보(34회) |          |          |          |          |

### 회기별 회장

- |     |     |     |     |     |     |     |     |
|-----|-----|-----|-----|-----|-----|-----|-----|
| 19회 | 양석구 | 27회 | 임명호 | 35회 | 고명옥 | 43회 | 김동언 |
| 20회 | 박홍삼 | 28회 | 김신성 | 36회 | 김형한 | 44회 | 현승철 |
| 21회 | 김광식 | 29회 | 박순흠 | 37회 | 김장욱 | 45회 | 송우찬 |
| 22회 | 고성욱 | 30회 | 양원홍 | 38회 | 박준범 | 46회 | 김병수 |
| 23회 | 김종남 | 31회 | 안재호 | 39회 | 전창범 |     |     |
| 24회 | 장창두 | 32회 | 양철민 | 40회 | 문만오 |     |     |
| 25회 | 박홍학 | 33회 | 문상현 | 41회 | 양경석 |     |     |
| 26회 | 임관봉 | 34회 | 최현성 | 42회 | 장계훈 |     |     |

## 한림중학교 총동창회장 이남호